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 인 친 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2024 April Vol.218

리:스펙 제대군인

온새미로

: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굿 JOB 굿 LIFE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의 사소하고 위대한 중독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예비역 해군 중사 서석호



온세미로

: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거리마다 꽃노래 울려 퍼지는 4월이 시작됩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청명한 하늘에 기분까지 맑아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날들에 마음이 부쩍 분주해집니다. 보리싹이 초록 빛깔을 뽐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농촌의 사람들은 본격적인 못판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있는 그대로의 웅골찬 자연의 순간을 마주하는 일은 요맘때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닐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대지의 생명력이 푸르른 색채들로 일렁이는 4월, 저 산 오랜 소나무 같이 온세미로 눈부신 순간들을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Contents

통권 218호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f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twitter.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8

Again my Life 라

새 삶의 시작을 응원

온새미로
 :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06 **매치포인트**
 더할 나위 없었던 시작을 보여준 한국의 글로벌 스타
 조성진 & 김연아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08 **리:스펙 히어로**
 보물섬 남해에서 세 아이와 함께 꿈꾸는 삶
 *서석호 예비역 해군 중사

12 **선배의 노하우 Zip**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디지털정보 파수꾼
 *송봉근 예비역 육군 대위

16 **굿 JOB 굿 LIFE**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박진호 예비역 육군 대위

Change Work 일

제2의 업을 찾는 방법

18 **지속 가능한 미래로**
 BEST ONE이 아닌 ONLY ONE
 *대구일마이스터고

22 **성공 길라잡이**
 AI, 챗봇이 도와주는 제대군인 전직지원

24 **Zoom IN**
 소비자도 판매자도 웃는
 온라인 재고할인 쇼핑몰
 *핌아시아

26 **방구석 1열 오피스**
 드라마 <잔혹한 인턴>으로 알아보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28 **꿀팁전당포**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에서 벗어나기
 영어 공부 유튜브 추천

30 **백 투더 잠**
 미스터리한 죽음을 읽어내는 직업
 *오작인 & 검시조사관



12



18

Better Live 락

즐거움이 있는 삶

32 **여행 보일지도**
 낭만 속을 거니는 기분
 *경기 고양

36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의 사소하고 위대한 중독
 도우리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 저자

38 **전국군대자랑**
 창끝 전투력 우수부대 되기
 *윤석봉 예비역 육군 원사

40 **오늘도 ESG**
 나무와 함께 숨 쉬다
 *4월 5일 식목일

42 **다 함께 PLAY**
 지구의 내일을 생각하는 한 걸음
 환경과 관련된 추천 도서



출처 - 조성진(중앙일보)



출처 - 김연아(중앙일보)

더할 나위 없었던 시작을 보여준

한국의 글로벌 스타

조성진 & 김연아

글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완성형 신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신인들은 뭔가 하나 부족하거나 어설픈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시작부터 베테랑보다 더 노련하고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신인에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은 온새미로에 걸맞게 더할 나위 없는 시작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세계를 이룬 두 거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SEOONGJIN CHO

K-클래식의 선두 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 음악가를 말할 때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마모폰’과 매년 연주 앨범을 발매하고 있고, 세계 최고 연주자들만이 설 수 있다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하고 있죠. 클래식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라이징 스타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클래식계에 조성진의 등장은 드라마틱하고 완벽했습니다. 1994년생인 조성진은 피아노를 6세에 시작해서, 11세에 첫 연주회를 했어요. 예술의 전당 영재 프로그램과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치며 2009년 일본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회 최연소로 우승하며 세계 콩쿠르에 이름을 드러냈고, 2011년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3위로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돼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5년마다 쇼팽의 고국인 폴란드에서 쇼팽의 곡만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콩쿠르입니다. 예선부터 결선까지 완벽한 연주를 한 것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어요. 더구나 의도적으로 그를 평가절하한 심사위원이 있었음에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이라는 완벽한 데뷔 이후 조성진은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을 착실히 쌓아 올렸어요. 2017년에는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

의 무대인 카네기홀 데뷔에서 베를린필과의 협연을 하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 클래식계는 조성진을 필두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밴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8세 최연소로 우승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의 세계 진출이 기대됩니다.

데뷔부터 은퇴까지 모든 순간이 완벽했던 은반 위의 여왕 김연아

“신이 내린 재능이다. 이런 재능은 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코치 ‘알렉산더 줄란’이 김연아 선수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계의 전설적인 스타입니다. 그녀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한국은 김연아 키즈로 불리는 유망주들이 세계 대회에서 입상하고 있어요. 한국이 피겨스케이팅계에 이렇게 존재감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압도적인 선수 시절 활약 덕분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1990년생으로 6세인 1996년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코치의 권유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전국 동계체전을 비롯한 국내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우승하며 남다른 실력을 뽐냈어요. 12세에 트리플 점프 5종을 완성해서 화제가 되었고, 한국 선수 최초로

YUN A KIM

2006년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였습니다.

시니어 무대 데뷔 첫 시즌인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본격적인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세계 대회를 휩쓸자 척박했던 훈련 환경이 알려졌고, 많은 기업에서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후원에 그녀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고, 본인이 세운 세계 신기록들을 다시 갱신하며 세계 피겨스케이팅 무대를 제패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4대 주요 국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게 되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어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하며 명예롭게 은퇴한 김연아 선수는 그간 참여한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올 포디움(All Podium)’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은퇴 후 김연아 선수는 후배 양성에 도움을 주며 유망주 발굴에 기여하고 있으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녀에게 영향을 받은 한국 피겨의 유망주들이 다시 세계 무대를 제패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66

보물섬 남해에서

세 아이와 함께 꿈꾸는 삶

예비역 해군 중사 서석호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려수도 통영과 여수 사이에 있는 보물섬 남해에서 세 아이의 아빠로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라는 보물을 캐는 사나이가 있다. 지금은 삶의 중심을 가정에 두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해군 중사 서석호 씨를 만났다.

글 김현정 사진 & 영상 황지수



Interview



●●● 군생활을 두 번 한 사나이

오늘의 주인공인 예비역 해군 중사 서석호 씨를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해로 출발했다. 옛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한 점 신선들의 섬'이라는 의미의 일점선도(一點仙島)라 불리던 남해는 아름다운 경관과 풍성한 먹거리로 인해 지금은 보물섬이라 불리운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서석호 씨와 대화를 하던 중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군대를 무려 두 번이나 다녀왔다는 것이다.

"사실 저는 군생활을 두 번 했습니다.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전공 관련 회사 생활을 2년 해오다가 27세에 사직서를 내고 경찰공무원(경위)에 대한 꿈이 생겨 1년여 고시준비생 생활을 하는 중에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 꿈을 접고 해군 부사관으로 두 번째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공부를 계속하기엔 어려웠기에 경찰이 아닌 군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육 공무원 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에 관심이 많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이상향 때문에 경찰공무원을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이 경찰공무원이라면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멋진 일이라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개인 사정으로 만 30세 늦은 나이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1년을 더 근무한 뒤 42세에 전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두 번이나 다녀온 두 개의 군번을 가진 사람입니다."

●●● 해군 체육복을 개발하다

대한민국 남자에게 군대생활은 나라와 조국을 지키는 영광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을 텐데 군생활을 두 번 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의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두 번의 군생활 중 특히 기억나는 일을 물어보았다.

“해군 부사관 시절 대민 선행으로 인터넷 기사에 소개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군수사령부 피복 Item manager로 3년 근무하면서 일반 디지털 전투복에서 해군만의 함상복을 개발했던 일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품질개선을 하지 않은 멋없는 체육복을 제가 새롭게 품질을 개선하여 조달했었습니다. 군체육복은 늘 트렌드에 뒤쳐진 옷, 멋없는 옷이란 생각을 깨고 싶어 담당자로서 슬림핏 디자인에 신소재 원단으로 해군 체육복을 변화시켰습니다. 타군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운동복을 만들었다는 점이 뿌듯하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해군 체육복을 입은 해군 장병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의 군생활을 했다면 두 번째 군생활은 소위 말하는 군대에 말뚝을 박을 생각으로 입대했을 터인데 다시 전역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생활 중에 입대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군생활을 성실히 해오던 중에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와이프 직장 상황에 따른 자녀 육아문제가 전역을 고민하게 한 큰 원인이었고, 평소 인생에서 가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전역이 최선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결혼 전 늘 남편으로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던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란 단어를 생각하면 함께한 추억이 많은 아이로 키우리라 꿈꿔왔기에 전역이란 선택을 하였습니다.”

○○● **자녀들에게 아빠와의 추억을 선물하기**

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계획했던 삶의 진로에서 벗어나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내기 위해서 전역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삶의 중심이 가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역 후 원했던 대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금은 제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근무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가진 다둥이 아버로서 아이들과 보내는



지금도 해군 체육복을 입은 해군 장병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 끼역 아이들에게 명심보감과 소학 등을 가르쳐서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금 명심보감을 매일 정독 중에 있습니다.



Interview

모든 시간이 소중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0개의 산에 오르는 미션을 수행 중이라 얼마 전에는 덕유산 정상에도 올라갔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같이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기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훌쩍 자라고 난 뒤에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퇴임 후에 지역 아이들에게 명심보감과 소학 등을 가르쳐서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금 명심보감을 매일 정독 중에 있습니다. 또 아이들 한자교육을 위해 한자지도사 1급도 공부하고 있고 더불어 그동안 취미로 해왔던 서예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서예 개인작가 자격을 위해 작년부터 서예회초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2점을 취득하면 개인작가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까지 2회 입상하여 작가점수 4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농수산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손해평가사는 연 1회 시험이고 현직과 겸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내년에 응시할 생각입니다.”

각자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달려가는 것이 아닌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며 주변 사람과 같이 손잡고 가는 방식인 것 같다. 보물섬 남해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며 남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보물들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45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디지털정보 파수꾼

예비역 육군 대위 송봉근

Song Bong-geun

정보보안전문가는 해커의 침입과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해 전산망을 전문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한다. 성실과 끈기로 낯선 분야에 도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 대위 송봉근 멘토에게 현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글 김현정 사진 황지수

Challenge



멘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멘토: 안녕하세요. 저는 포병장교로 6년 4개월간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한 송봉근입니다. 군대에서는 전포대장, FSO, 인사장교, 정보장교, 본부포대장, 중대장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멘티: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멘토: 저는 CHEQUER라는 기업에서 정보보안 엔지니어로 보안 솔루션 운영 및 자동화를 구현하고 개선하며, 사내 IT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파트너로 맺고 있는 솔루션에 대하여 Sales Engineer로서 고객에게 기술을 소개하고 지원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HEQUER는 데이터보호 플랫폼인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 개발사로 보안 분야에서 나름의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Tenacity

멘티: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멘토: 저는 전역을 결심한 순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나”라는 사람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자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혼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 어려서부터 개발을 공부한 친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저의 경쟁력이 한없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다 ‘그렇다면 개발을 하는 데 보안은 필수이니 보안업무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멘티: 제대 후 현재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멘토: 제대 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정보보안 관련 과정을 6개월간 국비교육으로 배우면서 작업한 포트폴리오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과정 수료 후 보안과 관련된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포트폴리오와 군생활에서의 성실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이곳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부 전공 및 관련 업무를 경험하지 않았던 제가 회사에 어필한 것은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멘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멘토: IT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전에 쓰던 기술이 도태되어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분야에서는 “끈기, 탐구, 호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자격증보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끈기 있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파고드는 탐구심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멘티: 막상 일을 해보고 나서 느끼는 이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멘토: IT업계의 특성상 분위기나 근무여건은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곳도 점심과 저녁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월차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근무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안과 관련하여 개선 및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니, 항상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때마다 오는 성취감이 크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시간 외에도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업무와 더불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멘토: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과 사내 직원분들께서 많은 요청과 질문들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께서 “이 질문은 당신에게 물어봐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큰 성취감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멘티: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멘토: 10년 후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보안 엔지니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필요한 대상이 회사일 수도 있으며, 신입 직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엔지니어이자, 신입 및 동료 팀원들에게는 저를 믿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선배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멘티: IT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멘토: IT업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종류도 많고 각 회사마다 원하는 자격증이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정보보안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은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가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다면 해당 자격증 1개는 꼭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티: 같은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멘토: 정보보안은 사내의 경찰이자 의사이자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보보안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하며, 요청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업무에서는
자격증보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끈기 있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파고드는 탐구심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

정보처리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 및 그 자격증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자격증으로,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1년에 3회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박진호
예비역 육군 대위

2023년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전 장려상(요약본)

전역사: 국가와 국민 위해 한 몸 바치리

“상황장교! 앞에 나와서 전역사(轉役辭) 한번 해봐!”

주간 상황 회의를 끝내고 작전지도를 마치신 사단장님의 명이 떨어졌다. 지휘통제실 한쪽 구석의 상황장교 자리에서 야간 근무를 했기에 몽롱한 상태였던 나는 쭈뼛쭈뼛하며 단상 앞으로 나가 사단장님 이하 참모들과 화상으로 참석하신 이하 부대 지휘관들 앞에 섰다.

수방사 52사단 지휘통제실 상황장교 중 한 명이었던 나는 그날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면 휴가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두 달간의 직업보도반 교육 그리고 전역이었다. 코로나 사태라는 혼란한 와중에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누군가의 언질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은 수방사령관이 되신 사단장님은 나를 그냥 떠나보낼 생각이 없으셨나 보다.

“특전사에서 뛰고 쓰는 것밖에 모르던 제가 군 생활의 마지막을 제 고향인 광명시에서 그것도 52사단 작전처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군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밖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한 몸 바치겠습니다!”

잠이 덜 깬 와중에 내뱉은 말은 두서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단장님께서 격려 말씀과 손목시계를 주셨는데 퇴근하는 길에 시계는 같이 고생했던 상황병에게 채워주고 나왔다. 그것으로 군대에서 수행했던 나의 임무는 모두 끝났다.

차를 몰고 위병소를 빠져나와 내가 했던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 지난 10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풍비박산난 집안의 자식이었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고 고3 때 특전부사관으로 입대하려던 나를 한사코 말리시던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7년간의 장교 복무 조건으로 군 장학금이 지원되는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이후 곧바로 장교로 임관한 나는 소원대로 특전사 장교가 되어 전국의 하늘과 산, 바다를 뛰어다니며 군 생활을 했다. 내겐 군대가 곧 집이고 가족이었다. 그런 날이 계속될 줄로만 알았다.

전역할 결심: 군복보다 방화복이 익숙해져

군 생활밖에 모르던 내가 전직을 꿈꾸게 된 건 특전사에서 중대장을 하던 때였다. 안타까운 국가적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국방부는 특전사를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였고, 부대별로 전시 임무 외에 유사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부대를 창설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 이전에도 특전사가 재난 대응을 해왔으나 일시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인력을 동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상 매우 난감한 업무였다. 인력, 장비, 전문성 등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임무에 추가로 119구조대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운 없는 부대의 중대장 중의 한 명이 바로 나였다.

막막했지만 한 단계씩 업무를 풀어나갔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소방의 119구조대였으므로 소방의 체계, 장비, 구조기법 등을 배워나갔고 소방학교 교관 초청 교육 및 장비 도입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런 와중에 서울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다녀와 부대원들에게 최소한의 화재 대응 기법과 기본적인 구조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처음에는 막막한 임무였지만 점점 재난 구조 부대에 걸맞는 구색을 갖추어나갔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나는 군복보다 방화복이 더 익숙해졌고 자연스럽게 소방공무원으로의 전직을 꿈꾸게 되었다.

내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 복귀했을 때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운 좋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체력시험을 자신만만하게 준비하던 나는 보기 좋게 낙방하였다. 의욕이 앞선 탓에 부상을 입고 만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할 때면 광명소방서에 가 있었다

시험에 불합격한 직후 당연히 합격을 예상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던 나는 곧바로 혼란에 빠졌다. 소방공무원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었고 늘 나오던 봉급이 당장 다음 달이면 끊길 상황이었다. 시험은 고사하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전에 없던 불안감과 절망에 사로잡힌 나는 백방으로 해결책을 강구했다. 취업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소방공무원 시험만 준비한 나에게 취업에 필요한 스펙이 마련되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전직을 결심한 이유가 단순히 취직을 위한 게 아니라 나름의 큰 뜻이 있었기에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불현듯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생각났다.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본교육 이후 나는 전역 예정 장교로 분류되어 주기적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자분의 연락을 받았었다. 그분은 취업에 필요한 여러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나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담당자분께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정확하게 이해해주었고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봐 주셨다. 두 개의 업체를 주선해주셨는데 나는 두 번의 면접을 통해 코오롱 연구소의 보안근무자로 취직하게 되었다. 또한, 취업 직후 6개월간 받는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셨다. 면접 때부터 나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어 나는 근무시간 외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일지라도 다음 시험일은 빠르게 다가왔다. 일, 공부, 재활치료, 운동을 병행하니 정신없이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왔다. 준비되었다고 자신했지만 언제나 변수의 연속이었다. 필기시험을 9일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되기도 하고, 운동하다가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렸다. 마음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답답할 때면 나는 늘 자취방 건너편에 있는 광명소방서로 가곤 했다.

그 뒤에는 ‘장미정원’이라는 공개공지(公開公地)가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 소방서 청사와 소방차를 한없이 바라보며 내가 왜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기나긴 고독한 싸움 끝에 나는 2022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합격 후 2주 뒤 나는 바로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했는데 절묘하게도 회사 재직 기간 1년을 채웠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취업을 제안해주신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자분의 해안에 감탄했다.

5개월간의 소방학교 교육도 도전의 연속이었다. 급한 성격 탓에 남들은 잘하는 것을 실수하기 일췌였고 동기들과의 트러블도 간혹 있었다.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되어 1주일간 격리되기도 하였으며, 구급차 실습을 할 때는 생때를 부리는 환자를 만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훈련병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무척 고되었다. 하지만 기껏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여기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게다가 소방학교의 성적은 소방서 배치 지역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기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였다. 합격만 하면 실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경쟁의 연속이었다. 나는 우여곡절 끝에 소방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다행스럽게 연고지인 광명소방서에 배치되어 정식 근무를 시작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또 다른 기회에 감사

어느덧 나의 소방관 생활도 1년이 다 되어간다. 근무일 아침이 되면 나는 수험생 시절에 찾았던 그 ‘장미정원’을 쓸곤 한다. 그날의 업무와 출동이 힘들 때면 수험생 시절 벤치에 앉아서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려본다.

많은 사람이 군 생활은 시간 낭비였고 인생의 지우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에게 군 생활은 사회로 전직할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아마 군인이 되지 않았다면 소방관이라는 길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방관 생활을 버려낼 만큼의 체력과 정신력도 기를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더 이상 군복을 입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는 모든 후배 장병의 건강을 기원하며, 또한 그들이 전역한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해본다. 아울러 전역 군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주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발전도 빌어본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BEST ONE이 아닌 ONLY ONE

남들이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일등을 하기 위해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리에서 대체불가한 전문인이 되도록 양성하는 학교가 있다. 정부지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대구일마이스터고를 방문했다.

글 김현정 사진 황지수



학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일 교장** 대구일마이스터고는 'BEST ONE이 아닌 ONLY ONE'의 비전 아래 인성을 바탕으로 배우고 실천적 문제해결력을 길러 유일한 나로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 창의, 자율의 교훈 아래 정밀기계가공과, 금형설계제작과, 생산자동화과로 구성된 마이스터고등학교이며, 학급당 18명 학년별 6개 학급 32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는 재학생에게 '진로360'(360도 방향으로 각각 1등이 되도록 하는)을 통해 대기업·공기업, 군인공무원, 중소기업, 해외취업 그리고 나아가 해외 유학까지의 진로 경로를 제시하고, 본인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전력회사 바텐팔의 '아우스빌둥'을 거치는 해외 취업과 베를린 기술대학·베를린 공대로의 유학 길을 열어 현재 동아시아 최초로 바텐팔에 2명의 학생이 취업하여, 베를린 기술대학·베를린 공대까지의 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 과정'을 통하여 재학 중 전문기술 교육을 익히고 졸업 후 곧바로 군입대하여 전문기술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인공무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취월장' 교내 동아리를 통하여 매년 졸업생 중 10%의 인원이 삼성, 현대기계, 포스코, 코레일 등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기업이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 '교내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재학생 100%가 취업하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는 졸업인증제를 통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탐구하는 인재, 배려하는 인재, 유일한 나를 목표하는 인재로 길러, 졸업 후 100% 취업하는 고교 직업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대군인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 **김경일 교장** 대구일마이스터고 특성상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 특성화 과정'을 통해 군의 전문기술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교다 보니 기숙사 사감 및 군특교관들을 채용함에 있어 가급적 군 관련 경험이 많은 제대군인으로 부사관 이상의 간부를 우선 선발합니다. 학생들에게 군생활의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군인 모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학교 규율을 잘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제대군인들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김경일 교장



홍기영 사감



임해상 군특성화 교사



김현우 군특성화 교사

현재 제대군인은 몇 명이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 **홍기영 사감** _____ 전국에 44개의 군특성화고가 있고 상당수의 제대군인들이 교사와 사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군특성화 교관으로 육군의 정보통신과 총포정비 분야의 교사 2명과 사감 2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희망하는 예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인생 전체의 목표를 만들어 가는 데 올바른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특성화학교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임해상 교사** _____ 장점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아전에 초급간부로 보내고 나서 차후에 잘 적응한 제자들을 보았을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젊은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고 사고를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일반 기업체와 달리 통제되거나 억압이 비교적 적고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단점은 아니지만, 교사다보니 학생들 앞에서 매사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가끔 제자들 중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 **김현우 교사** _____ 교사라는 직업은 일반 기업체와 달리 상하 위계질서에서 오는 통제되거나 억압적인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휴일에도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는데 지금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핸드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등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인 부분도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군 특성화고 학생 교육을 통해 육군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긍지와 방학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항상 활기가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는 점도 학교 근무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홍기영 사감** _____ 교사님들과 달리 저는 사감 근무 특성상 야간근무를 하고 주간에 쉬는 시스템인데 야간에 휴식시간 4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퇴근해서 출근할 때까지 개인 취미활동이나 다른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에 퇴근하면 일요일 저녁에 근무할 때까지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든지 개인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타 직장에 비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과 학교라는 특성상 선생님이라는 존칭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근무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임해상 교사** _____ 저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냥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사가 된다면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더욱 의미있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생활 할 때 음주운전이나 각종 사고를 치는 불성실한 부사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초급간부가 되도록 제 손으로 길러내는 것도 보람될 것 같아서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 **김현우 교사** _____ 저는 24년 군생활 후 전역을 앞두고 인생 2막에 대해 고민하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해왔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교육 관련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 **홍기영 사감** _____ 저는 육군소령으로 전역하게 되었는데 바쁜 부대업무로 인해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굶은 일을 마다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일마이스터고등학교에 사감으로 면접을 봤는데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흔쾌히 스카웃 제의를 해주셔서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 **임해상 교사** _____ 전역을 앞두고 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때문에 현재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역하는 그날까지 책임감 있게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 있는 인트라넷의 취업지원단이나 구인구직 사이트만 쳐다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우 교사** _____ 전역을 앞두고 사회에 진출을 하 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차별화된 자신만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전역한다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거리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하며 배우고 익힌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 **홍기영 사감** _____ 자신이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사회적 지위였다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직장을 구하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AI, 챗봇이 도와주는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취·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브이넷) 고도화 사업이 완료(24. 3. 12.)되어 챗봇상담사를 통해 보다 빠르고 똑똑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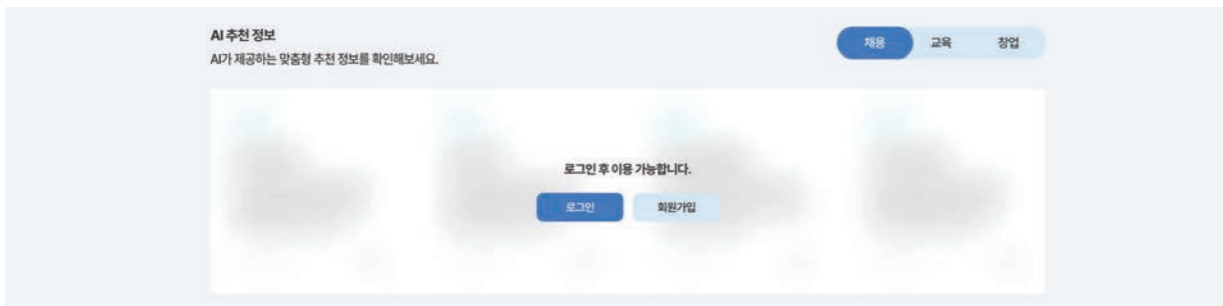
시스템 고도화로 무엇이 보완되었나요?

- 일률적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전직지원** 가능
- **인공지능(AI)**이 개인 성향 분석으로 적합 직업교육, 자격증, 일자리 등 추천
- **챗봇상담사** 보보가 365일, 24시간 민원 행정사항 안내 및 맞춤 정보제공
- **통합검색** 기능 및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 증진



AI 맞춤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로그인 시** 나에게 맞는 채용, 교육, 자격증 정보 추천



※ Tip. 이력서 완성도가 높을수록 더욱 알맞은 정보 획득

챗봇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 나의 정보 / 주요 공지 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맞춤 지원제도 / 관할 센터 및 보훈(지)청 찾기
- AI 맞춤 정보(채용, 교육, 자격증 추천) 확인

※ Tip.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안내 버튼 적극 활용!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5년 이상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 우선지원필요 의무복무(**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등) 제대군인
- ※ 회원 가입: PC 또는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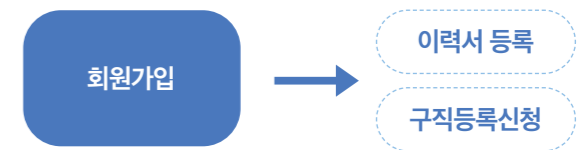
회원가입 시 제대군인이 받는 혜택은?

- (공통) 취·창업 컨설팅, 정보제공 및 기업체 인재 추천, 사이버 교육
-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위탁교육
- (중·장기복무 전역자)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위탁교육, 전직지원금



성공 취업의 Key!

- 브이넷 회원가입 후 반드시 **이력서 등록 및 구직등록 신청**
- 담당 상담사와 상담 시 더욱 자세한 맞춤 안내가 가능



※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 1666-9279(군인친구)



소비자도 판매자도 웃는 온라인 재고할인 쇼핑몰

핀아시아

고물가 시대에 울고 웃는 우리의 장바구니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가 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 못난이 농산물 등 판매자 입장에서 판로를 찾기 어려운 물건들을 모아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떠리몰'을 찾으면 된다. 핀아시아는 일상 가까운 곳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환경이 상생할 방법을 발견했다.



글 이재경 사진 핀아시아 제공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떠리몰'

핀아시아가 운영하는 '떠리몰'은 200만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체화재고 전문 쇼핑몰이다. 이곳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 못난이 농산물, 과다재고, 시즌오프 상품뿐 아니라 성능에 큰 문제가 없는 초기 불량품 및 전시 제품 등을 가리키는 '리퍼브' 제품까지 취급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가치소비 외의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최근의 소비 동향에 떠리몰이 취급하는 다양한 물품과 최대 90%라는 파격적인 할인가는 가히 매력적이다. 떠리몰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관심과 의문에서 시작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연속하며 성장해 왔다. 10여 년 전 신상돈 대표의 수입 유기농 시리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급업체들의 고민을 알게 됐다.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상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데 프로모션으로 판매해줄 수 없겠냐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해 떠리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현재에 이르게 됐다.

소비기한에 주목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다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실제로 섭취 또는 사용이 가능한 소비기한은 그보다 길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리스크가 크기에 취급이 거부되어 연간 9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핀아시아의 떠리몰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그렇다면 떠리몰이 지금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떠리몰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할인 폭이 큰 데다, 온라인 쇼핑몰이어서 포장·배송이라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했다. 핀아시아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상품을 모아서 한 번에 분배하는 다스(DAS) 시스템을 사용해 물류를 처리하고 웹사이트 디자인도 단순화했다. 홍보는 소비자들 입소문에 맡겼다. 최근에는 상품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의 재고와 가치를 평가해 최적의 가격을 뽑아내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품은 ESG의 가치

'버려지는 상품을 줄여 소비자, 판매자, 환경에 모두 보탬이 되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시작하던 시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고객사와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과제였다. 신뢰를 얻기 위해 상품 구입 시 직접 먹어보는 샘플링 조사, 출고 전 육안 확인, 변질 우려가 있는 상품군에 대한 세균 검사 등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거쳤다. 현재까지도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떠리몰의 기본 수칙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덕분에 떠리몰은 다양한 이유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B급 상품들이 빠르고 안전한 유통과 저렴한 가격을 통해 그들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첫 출발의 마음가짐대로 ESG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사내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리유저블 웰컴키트 제공, 인쇄물 사용을 지양하는 페이퍼리스 오피스 문화 정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피어나기 위하여

2013년 식품 카테고리 시작한 떠리몰은 뷰티, 건강기능식품, 패션, 생활용품·가전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 왔으며, 판매자센터를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확장해 사세를 넓혔다. 매출 면에서는 연평균 58%의 성장을 보였다. 작년에는 떠리몰 앱 누적 설치 수가 200만을 돌파해 유통기한 임박상품 플랫폼 중 1위를 달성했다. 최근에는 유통업계 상생 프로젝트 '함께해요! 상생마켓' 기획전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작황이 불안정해진 오늘날에 핀아시아의 역할은 경제 면에서도 환경 면에서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핀아시아라는 사명은 'Fabulous In March Asia'의 줄임말로, '봄이 시작되는 아시아의 3월처럼 아시아에 피어난다'는 의미다. 그 이름처럼 유통기한 임박상품 및 과다 재고제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아시아 최대의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핀아시아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 출처 CJ ENM



드라마 <잔혹한 인턴>으로 알아보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우리나라 여성 중 대부분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단절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취업에 나서지만, 그들 앞에 놓이는 선택지는 매우 한정적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소개한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재취업에 도전합니다!”

능력 있는 MD로 직장에서 인정받던 주인공 해라(라미란)는 결혼과 출산으로 '워킹맘' 대신 '육아맘'의 길을 선택한다. 7년간 주부로서의 삶을 살던 해라는 잊고 지냈던 자아를 찾아 취업하기로 결심한다. 굳은 의지와는 달리 면접을 보는 족족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경력단절여성의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 그러던 중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드디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된 해라.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재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해라는 경력단절 기간이 있는 40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신입사원 대신 정규직 전환 전제의 인턴을 제안받게 된다. 과연 해라는 ‘경단녀’의 벽을 넘어 자아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Q.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 158개소가 운영 중이며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욕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비롯해 경력단절예방, 집단상담 등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드라마 <잔혹한 인턴>

Q. 신청 Check List

- ☑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 ①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②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 ☑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 ☎ 1544-1199

Q.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소개

- ① **직업교육 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 ② **직업상담**: 경력개발 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 자신감 고취
- ③ **취·창업 연계**: 인턴 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 유관기관 연계
- ④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 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 ⑤ **경력단절 예방**: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 구축

Tip Box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수행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여성가족부	인턴 연계	인턴 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취·창업 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 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158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 2024년 제도보완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에서

벗어나기

영어 공부 유튜브 추천

01



헤일리 쌤

문법이나 단어는 잘 아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목소리만으로 구독자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헤일리 선생님에게 '스피킹'을 배워보자. 누구나 쓰는 말, 조동사, 비교급, 의문문 등 상황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예문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다. 영상마다 <프렌즈>, <슈츠> 등 유명한 미국 드라마에서 발췌한 예문 100가지를 들어볼 수 있어 새도잉 공부에 적합하다. E-Book을 참고하면 주의해야 할 발음,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 문법 팁 또한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이니 부끄러움은 잠시 넣어두고 반복해 보자.

02



양킹

'영어'의 'ㅇ'자만 나와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금방 포기하게 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 채널을 추천한다. 국내에서 홀로 공부해서 유학파만큼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된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양킹 채널의 주력 콘텐츠이다. 지극히 평범한 이들의 공부 방법과 시행착오 등이 담긴 대화로 쪼그라든 마음엔 용기가 생긴다. 양킹이 추천하는 다양한 영어 공부법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미드 새도잉이다. 무겁고 딱딱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즐겁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그의 공부 철학을 엿볼 수 있다.

03



TED

영어와 인생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 채널을 소개한다. 기술(Technology), 오락(Entertainment), 디자인(Design)의 축약어인 '테드'는 각 분야의 저명인사, 큰 업적을 이룬 유명인, 노벨상 수상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 각자의 인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채널이다. 이 영상을 활용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우선, 수준에 맞는 영상을 골라 시청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한 다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막과 함께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 게 좋다.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문장 구조를 익혔다면 받아쓰기로 복습하는 것은 필수이다.

04



라이브아카데미

영어 강의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로, '빨간 모자 쌤'으로도 유명하다. '라이브아카데미'와 초급자를 위한 '라이브아카데미토들러'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목이 간질간질하다', '기침이 미친 듯이 나오다'와 같이 조금씩 다른 한국말과 영어의 뉘앙스와 표현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진행 방식 덕분에 영상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알차다. 하루에 한 가지 표현법만 익혀도 충분한다. 구독자를 위한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 강의 자료나 스터디메이트를 구하기에도 좋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영어 공부, 꼭 학원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유튜브 채널을 추천한다. 혹 이직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더욱 주목해 보자. 필요한 준비물은 자신감과 열정뿐이다.

미스터리한 죽음을 읽어내는 직업 **오작인 & 검시조사관**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아내고, 수사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 바로 시신을 살피는 일인 '검시'가 선행되는 덕분이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사인을 밝혀내는 조선시대 오작인과 지금의 검시조사관에 대해 알아보자.



삶의 지혜인 범물로 죽음을 살피다

오작인



오작인은 관아에 소속된 하급 아전이었다.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고을의 수령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의학과 법률에 대한 조언을 하는 의술, 심부름이나 경비를 서는 향인 등과 직접 시신을 만지고 검시하는 오작인이 팀을 이루어 고인을 살폈다.

조선시대에는 시신을 훼손하는 검시가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작인은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 오로지 눈으로만 관찰해 죽음의 원인을 파악해야 했다. 이를 위해 식초, 술지게미, 삼주 뿌리, 은비녀, 백지, 단목탕 등 10가지가 넘는 '범물'을 검시에 활용했다.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달근 뒤 식초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혈흔 반응을 관찰하고, 입과 항문 등에서 독을

검출할 때는 은비녀와 백지를 활용했다. 또한 향나무로 단목탕을 끓여 시신을 닦는 데 사용했고, 향균 효과가 있는 삼주 뿌리로 부패된 시신의 악취를 제거했다. 검시 방법이나 절차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신주무원록'을 지침서 삼아 체계적이고 증명된 방법으로 시신을 살폈으며 최소 2번의 검시를 진행했는데, 검시마다 각각 다른 오작인이 맡아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오작인은 시신을 만진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소문이 따르기도 했다. 미천한 신분으로 천대 받는 직업이었지만 묵묵히 공익을 위해 일하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사인을 밝혀냈다.

사망 사건 수사의 방향키를 쥐다

검시조사관



조선시대 오작인과 비슷한 일을 하는 현대의 직업인 검시조사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전문직이다. 이들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시신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고인의 신원 파악, 사망의 원인과 시간,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사건수사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검시조사관이 타살로 추정되는 근거를 전달하면 경찰 수사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

검시조사관 역시 시신 해부 없이 사인규명을 한다는 점이 오작인과 유사하다. 이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신고내용과 현장을 꼼꼼히 대조하고, 시신을 그저 육안으로 살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또한 현 시대의 '범물' 역할을 하는 직장 온도계, DNA 채취 등 현대 과학 기술을 동원한 검시와 더불어 유가족과의 대면을 통한 질의응답에서도 힌트를 얻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

특채로 선발되는 검시조사관은 초창기에는 의료학과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으로도 지원 자격이 확대되었다. 연평균 번사 사건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시조사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사망감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는 이들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 역시 넓어지길 기대해본다.

낭만 속을 거니는 기분

경기 고양

햇살을 받으며 걷기 좋은 4월이다.
경기도에는 문화와 풍경의 아름다움이 맞물려 낭만을 그려내는 도시가 있다.
한창인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경기 고양시의 이곳 저곳을 걸어 보았다.

글 이재경 사진 고양시청 제공



임진왜란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나지막한 덕양산에 위치해 있다. 한두 시간을 들여 천천히 걸으며 둘러 보기 좋은 곳이다. 입구에 있는 대첩문으로 들어서면 임진왜란의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의 동상이 위엄을 드러낸다. 중간 길로 빠지면 국궁 연습장으로 쓰였던 '충훈정'이 있고, 다시 동상 쪽으로 돌아와서 봄 풍경을 즐기며 길을 따라 올라가면 권율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충장사'가 나온다. 충장사는 1970년에 건립된 건물로, 권율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으며 행주대첩제, 행주문화제 때는 제전을 드리기도 하는 곳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자. 충장사에서 나와 더 올라가면 '대첩기념관'을 둘러볼 수 있다. 행주대첩에서 활약한 '신기전'을 비롯한 여러 무기와 권율 장군 승전도, 토성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등을 전시 중이다. 정상에 있는 행주대첩비까지 향하는 길에는 '진강정', '덕양정'이 차례로 우리를 반긴다. 이어서 '충의정'까지 둘러보고 내려오면 행주산성 한 바퀴가 마무리된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5번길 89

숲속에서 만난 조선 왕조의 다섯 능,
서오릉

다음 행선지인 서오릉 역시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다. 서오릉이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조선 왕조의 다섯 능인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을 일컫는 이름이다. 5개의 큰 능 외에도 다른 원과 묘가 함께 들어서 있다. 본격적으로 서오릉을 탐방하기 전에 입구 근처의 역사문화관에서 배경 지식을 쌓고 가면 좋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은 숙종과 인현왕후 민씨, 인원왕후 김씨의 능인 '명릉'과 재실이다. 나무들이 마치 능을 지키는 것처럼 둘러싼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수경원'을 지나면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의 능인 '익릉'이 나오고 숲길을 따라 또 한참을 걸으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예종과 안순왕후 한씨의 능인 '창릉', 영조의 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인 '홍릉'을 볼 수 있다. 장희빈의 묘인 '대빈묘',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의 능인 '경릉', '순창원'으로 향하는 길을 걷다 보면 다시 입구로 돌아온다. 모두 둘러보기 부담스럽다면 마음이 끌리는 곳을 향해 걸어 보는 것도 추천한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



봄 기운에 젖은 목가적인 풍경,
원당목장

원당목장으로 향하는 길은 특별한 낭만을 선사한다. 도심에서부터 출발해 목장으로 향하다 보면 금세 시골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초원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곳은 원래 한국마사회에서 마필관계자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공간이지만, 일부 공간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고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니 편한 마음으로 풍경을 감상하면 된다.

말과 함께 체험을 하는 공간은 아니다. 대신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산책이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개방된 구역에서 목장을 바라보면 흰 울타리 너머 펼쳐진 초원에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거니는 모습이 보인다. 한 폭의 풍경화 같다. 내부에서 음식을 팔지는 않지만 피크닉존이 마련되어 있으니 잠시 앉아서 봄 날씨를 한껏 즐겨 보자. 눈에 담은 장면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장소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12



고양에서 낯선 아름다움을 만나,
중남미 문화원

마지막으로 방문할 장소는 우리를 지구 반대편으로 이끈다. 30여 년간 중남미 지역 4개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이복형 원장과 부인 홍갑표 이사장이 수집한 유물, 미술품 등을 바탕으로 설립한 중남미 문화원이다. 잘 정돈된 정원과 돈키호테 동상, 붉은 벽돌 건물이 바깥에서부터 이국적인 인상을 풍기며 박물관, 미술관, 종교전시관, 조각공원 등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져 있어 볼거리가 많다.

박물관은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를 중남미로 데려다 놓는다. 다양한 전시관들이 있으나 수백 개의 가면을 벽에 전시한 '가면관'이 특히 인상적이다. 미술관에는 중남미 특유의 미감이 묻어나는 회화 및 조각품, 수공예 자수 작품, 전통 의상을 전시해 두었다. 종교전시관은 성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분위기가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taco)'를 맛볼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있으니 여행을 마무리할 장소로 제격이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33-15



나의 사소하고 위대한 중독

글 도우리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 저자



Q.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는 40대입니다. 일자리를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보니 무료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멍하니 핸드폰만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지... SNS를 보다보면 2~3시간은 그냥 흘러버리죠.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타인을 부러워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둬야지, 하다가도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저, 중독이겠죠?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도파민 중독이라는 같은 전장 속에서

새삼 신기합니다. 제대군인인 당신과,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저는 낯모를 뿐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인데도 SNS 중독의 모양은 이렇게 비슷하다는 점이요.

무엇보다 솔한 훈련으로 굳은살이 박힌 당신의 정신력조차 번번이 꺾이게 만드는, 이 도파민 중독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실감했어요. 정말, 요즘 주변이고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닝닝과 같은 유명인이고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며 디지털 공간에 능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조차, 오히려 이렇게 유해한 '집중력 전쟁통'에서 위축되어 게시글을 올리지 않아 'SNS 소통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되었다고 하죠. 이를테면 우리 모두 '도파민 중독이라는 전장'을 공유하게 된 거죠.

왜 타인의 삶을 염탐하는 건 그리 중독적일까요? 그 화려한 이미지가 편집된 현실일 뿐이고, 허세라고 치부해도 쉽게 떨쳐지지 않아 결국 나의 초라함을 되새기게 되는 데도요.

행복이란 일상적이고 고유한 상태가 아닌, 어쩌다 잠깐 달성하는 숏폼(short form) 같은 형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목을 끄는 숏폼들이 그렇듯, 오디오가 비지 않는 입담이나 대단한 외모, 뚜렷한 스펙이나 자선이 있는 삶만이 '유잼' 취급받습니다. 반면 그러한 기준에서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벗어나는 삶은 '노잼' 취급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잠깐의 휴식이나 준비기간, 나와 주변을 돌보는 질적인 시간은 '노는 일' 취급을 받거나 어떤 성취들은 '물경력'이 되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액체화되는 시대(지그문트 바우만 <액체 근대>)이기에, 홀로 '디톡스 노오력'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중독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당신과 내가 '우리'로 묶이는 일

저는 제 글쓰기 수업 때 아껴 쓸 단어 중 '우리'를 꼽습니다. 제 이름(실명 맞습니다) 때문만은 아니고요, 쉽게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각자의 차이를 가릴 위험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SNS 중독의 보편성이 이렇게 '우리'를 묶어준다면, 기꺼이 함께 나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혼자로는 엄두가 나지 않기에 당신을 불러내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모였다고 해요. '집중력'을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으로 세우느라고요. 지난해 10월 24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Meta)가 미국 41개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어요. 메타가 플랫폼을 과하게 중독적으로 설계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개인적인 노력의 대상으로만 상상되던 집중력도 일종의 '공중 보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이죠. 평행우주가 아닌, 같은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 여기 우리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무기로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를 추천드려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내 베스트

셀러였던 <도둑맞은 집중력(요한 하리)>을 포함해 집중력 문제를 고찰하는 책들에서 꼭 자문을 구하는 인물, 제임스 윌리엄스가 직접 집필한 책입니다. 이 교수의 이력이 특이한데요, 구글에서 10년 동안 전략가로 근무한 데다 검색 광고 분야에서 공로를 세워 사내 최고 영예인 '파운더스 어워드(Founders Award)'를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예를 박차고 나와 플랫폼 기업들의 집중력 기술 설계를 비판하는 기술윤리학자가 되었고요. 그 윌리엄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공적인 집중력'이에요. 모두가 번번이 중독에 항복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것은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처럼 거대한 전략일 수도, 지금 중독의 현실을 잠시라도 비판적으로 고민하는 아주 사소한 시도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전초기지에서 만나요

'우리'는 이 문장들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혹은 읽는 도중에서조차) 알고리즘 사이를 헤메겠죠. 중독은 단번에 격파될 대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이불'과 같은 알고리즘 설계를, 이 쏟아지는 현실을 잠시 피할 병커로 이용하기도 하면서, 함께 밟고 있는 중독 사회의 지형을 살피면 어떨까요. 그때 드는 고민과 감정들을 감히 '전우애'라고 불러 봐도 될까요.





창끝 전투력 우수부대 되기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2014년

주임원사님.

네.

이번에 대대 주임원사로 보직 받아서 고생이 많았죠?

문제점을 하나씩 따져가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임원사가 고생한 덕분에 재편된 부대의 피복장비, 간부식당, 주택문제 등 상당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만...

소문에 우리 부대 일부 인원의 불평불만과 편 가르기 문화가 아직 있다던데...

응성

응성

응성

흠...

주임원사!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내가 정처병부서에만 있다보니...

대대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대 제자리에 셋!
10분간 휴식!

우역!

이런 후덥지근하고 비 오는 날에 산악구보라니...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못 뛰겠어.

앞으로 부대집중훈련기간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하하!

어구...

기본훈련과 사격집중훈련, 중대/지역대별 부대훈련, 대대전술훈련, 60Km 전술행군까지.

이젠 술도 끊어야 할 판이야.

힘이 드냐?

이 목소린?

충성!

김중사 많이 힘들지?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 힘내자!

대대장님, 주임원사님도 저렇게 술선수범 하시는데...

부대 앞으로 가!
특공! 파이팅!

하하! 들! 셋! 넷!

아... 아닙니다. 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우!

대대장님과 지역대장, 중대장, 참모들 그리고 모든 부대원이 한마음이 되면서 제반 문제를 극복해 냈다. 덕분에 그해 연말 육군의 "창끝 전투력 우수부대"로 선정되었다.

- 윤석봉 예비역 육군 원사 -

나무와 함께 숨 쉬다 4월 5일 식목일

지구를 생각하는 이달의 기념일

기후변화가 날로 심화되면서 고온 건조해진 기후 탓에 대형 산불이 잦아졌다.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해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들까지 소실된다. 기후변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식목일에 주목하고 나무를 심어야만 하는 때다.

정리 편집실



1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나라 식목일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식목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48년이다.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해 민속사와 농림사를 바탕으로, 의미 있고 나무 심기에 좋은 날짜를 골라 나무 심기를 장려하는 날로 정했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이유는 먼 역사 속에 있다. 677년 신라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이룩한 것을 기념하며 나무를 심었다는 날짜와,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 제사를 지냈던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4월 5일'이다. 이렇듯 역사를 바탕으로 상징성을 고심하여 지정한 법정기념일이었지만 첫 제정 이후 두 차례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폐지되기를 반복하는 등 순탄치만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시기가 3월로 당겨져 식목일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는 중이다.



2

19세기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가 나무 심는 오늘날까지

1ha의 숲은 연간 승용차 5.7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목일을 두고 공휴일 지정부터 날짜 변경까지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식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을까. 세계 최초의 식목 행사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출발했다. 한 개척민이 시작한 산림녹화 운동을 계기로 1872년 J.S.모턴이 제1회 식목행사를 개최했고 그의 생일인 3월 22일이 '나무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후 꾸준히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하며 미국의 각주와 캐나다를 거쳐 세계로 식목일이 퍼져 나갔다. 현재 독일, 호주,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도 각국 실정에 맞는 식목일을 지정해 나무를 심거나 산림 보호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3

세계경제포럼이 말하는 '1조 그루 캠페인'

나무 심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식목일에서 그치지 않는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은 '1조 그루 캠페인'을 발표했다. 미국, 아마존, 인도 등지에서 숲을 보전하고 재조성하여 1조 그루의 나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엔도 이 캠페인을 지지했으며 미국 하원에서는 이에 동참하기 위해 '1조 나무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나무를 1조 그루 심기 위해서는 12억 헥타르(1,200만km²)의 땅이 필요하다고 추산되었으나 실제로 이용 가능한 땅의 면적이 이보다 적다는 것이다. 무작정 나무를 심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식목 방법을 고민하고 매년 한국 절반 크기씩 숲이 파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4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떻게 심어야 효과적인가

산림을 지키고 싶다면, 평소 종이를 절약 및 재활용하고 나무 심기에 동참하면 된다. 나무를 꼭 식목일에 심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지역별 기후에 따라 남부 지방은 2월 하순~4월 초순, 중부 지방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북부 지방은 3월 하순~4월 하순 정도로 나무 심기 좋은 시기가 다양하므로 이에 맞추어야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다. 묘목은 잔뿌리가 많고 가지가 흠집 없이 고루 뻗은 것으로 고르고, 심을 때 구덩이 깊이, 물 주는 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혼자 심는 것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에서 매년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찾아 함께해보자. 더 보람찬 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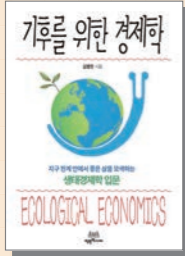
산림청 탄소나무계산기

일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해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모두 흡수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웹사이트



지구의 내일을 생각하는 한 걸음 환경과 관련된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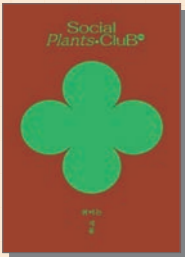
산과 들이 초록으로 물드는 봄이 돌아왔지만, 우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환경을 주제로 다룬 책을 읽으며 지구의 내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기후를 위한 경제학

김병권 | 착한책가게

방대한 자료와 풍부한 그림, 도표를 활용해 생태경제학의 핵심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한다. 생태경제학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기존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학문이 제시하는 주요 이론과 다양한 주장들, 나아가 특별한 정책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취미는 식물

권지연 | 김반장스튜디오

조경 전문가이면서 취미가 식물인 저자가 일하며, 키우며 겪은 에피소드와 식물의 숨은 이야기를 담았다. 식물을 키우는 방법과 플랜테리어 팁 등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다. 집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부터 유행하는 식물까지 실용적이고 낭만적인 식물 가이드북이 되어줄 것이다.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 자이언트북스

인류 대멸종 이후 더스트로 멸망한 이후의 세계를 다룬 SF 장편소설. 기후 변화와 과학의 진보, 인공지능과 인류의 멸망 등 미래 세계와 그곳에서 살아갈 인간 사회의 변화를 탐구한다.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던진다.

독자퀴즈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② 중소기업지원센터
- ③ 다문화가정지원센터 ④ 전자정부지원센터

※ 4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팩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QUIZ

2024년 3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종민(경기 용인), 박덕환(서울 송파), 박철오(경기 평택), 반해울(대구 달성), 양우석(충북 청주)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 드립니다.

※ 3월호 정답 ③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4월 6·25 전쟁영웅

6·25전쟁 해병대 최초 전투 승리의 영웅

대한민국 해병 소장 **고길훈**

1922. 7. 10. ~ 1981. 2. 14.

고길훈(당시 계급: 소령) 부대는 6·25전쟁 해병대 최초의 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 시 지연작전을 통해 적의 호남지역 우회기동을 저지하였다. 또한 해병대 제1대대장으로 국군 최초로 한강을 건너 연희고지(現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적을 섬멸하는 등 서울탈환작전에서 결정적인 공훈을 세웠다.

고길훈 소장 Story

-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에 참여
- 1950년 7월 16일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정부미 13,000가마 보준)
- 1950년 9월 15일~10월 8일 인천상륙작전 / 서울탈환작전
- 1961년 8월 1일 소장 진급, 1963년 12월 5일 소장 예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